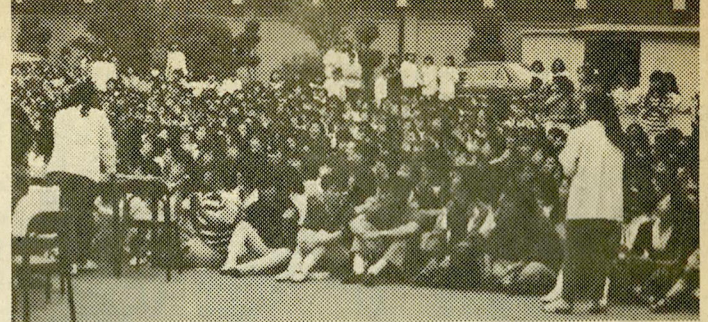


인터뷰

AMK 노조민주화 투쟁의 결실 신임노조위원장 허옥자씨

지난달 23일 청주시 송정동 소재 대규모사업장인 AMK 노동자들은 90여일간의 노조민주화투쟁 결과·집행부를 교체하

을 허가한다는 조건으로 재선거를 실시했다. 조합원들이 지켜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AMK 노동자들이 회사 운동장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해고자들의 헌신성이 노조민주화 기틀”

는 데 성공했다.

회사측과 전임집행부, 민주노조추진위의 합의로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민노추측 후보로 나온 허옥자(22·여)씨가 총투표자 1천2백97명 중 1천1백34명의 지지를 획득, 잔여임기의 위원장이 된 것이다.

“노조활동은 처음”이라는 신임 허옥자 위원장은 이제 노동운동의 첫발을 내디딘 심정이겠지만 그에게는 청주공장 3천5백명을 포함한 7천여 AMK 노동자의 기대가 쏠려 있다.

그는 중학교 졸업 이후 산업체 부설학교에 다니면서 노동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AMK에 입사한 것은 88년 6월의 일이다.

—보궐선거를 다시하게 된 과정은?

—7월초에 회사측과 협상, 구속된 박미순·박필순씨의 보석

—90일간의 투쟁이 가능했던 요인은 뭐가.

—공단내 다른 동종 사업체보다도 낮은 임금순준, 그리고 전 위원장의 노골적인 어용행각에 조합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조합원들의 굳은 단결력이 회사측의 후색선전, 구속, 설립변경신고 반력 등 일방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노추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게 했다. 민노추를 이끌어온 해고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노조민주화의 기틀을 다졌다고 봐야 한다.

—위원장이 교체됐다고 민주노조라 할 수 있을지?

—아직은 단언 못한다. 이중구 전집행부 사무국장 등이 현재도 직책을 내놓지 않고 계속 노조일에 간섭하고 있는 상태다. 당분간 내부의 조직·교육사업에 주력하면서 민주노조로의

전망을 결코 흐리지 않겠다.

—청주지역 노동운동속에서 AMK투쟁이 가지는 의의를 든다면?

—한주전자 한국도자기 코리아이트 등에서의 임금투쟁에서 상승작용을 했다. AMK가 지역내에서는 (주)대농 다음으로 큰 사업장이기에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본다.

아직껏 ‘도산(도시산업선교회) = (기업)도산’이란 악선전이 통하고 ‘전노협 = 과격’의 등식이 성립하는 지역사정 때문에 ‘초기단계의 어려움이 많음’을 허위원장은 숨기지 않는다. 빼앗긴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부당한 잔업을 거부하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 보겠다”는 다짐을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이복주 기자〉

마산 한국스타 직장폐쇄 신나뿌리며 출근저지

【마산】관리자를 시켜 여성노동자를 집단폭행해 유산시키는 등 임투기간에 비열한 폭력을 자행한 한국스타(수출자유지역 내 일 본인 1백% 투자)측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휴가기간을 이용해 직장폐쇄를 하고 4일부터 노조원들의 출근을 막고 있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4일 출근해 보니 회사측이 철조망으로 회사를 봉쇄하고 옥상에 신나와 돌, 고추가루물을 준비해뒀다가 이를

회사안으로 들어가려던 노동자들에게 마구던지며 막았다는 것이다.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한국스타는 지난 3월 시작된 임투를 질질 끌면서 노조활동이 활발한 1공장 노동자 3백50여명 중 2백여명을 감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감원위협과 폭력을 일삼다가 지난달에는 임신부를 집단구타해 유산시키기도 했다.

한편 지난 9일 한국스타·한국중천 등 수출 4개사업장 노동자들은 스타1공장 앞에서 ‘스타·중천 여성노동자폭행 및 민주노조 말살음모 규탄대회’를 열고 마산 시내에서 가두홍보를 벌였다.